

# 함평천지 한우거리, 음식문화 특화거리 됐다

## 장성 친환경 삼채음식거리도 전남도 선정... 특화거리 12곳으로

함평읍 '함평천지 한우거리'와 장성읍 '친환경 삼채음식거리'가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로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 선정 특화거리는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7일 "지난달 15일까지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공모한 결과 3개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함평천지 한우거리'는 명품 함평한우를 재료로 한 신선한 육회와 육회비빔밥을 집중 부각시켜 인근의 수산물거리와 함께 함평군의 대표적 맛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장성군은 '친환경 삼채음식거리'를 중심으로 축령산의 치유(힐링)체험, 백양사, 청백당 등 관광코스과 연계해 삼채(매운맛·쓴맛·단맛)를 활용한 친환경 건강식단을 주제로 차별화된 특화거리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선정된 특화거리에는 도비 1500만원이 지원돼 조형물 설치, 위생찬기 지원, 외국어메뉴판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도의 특색과 전통

이 살아 있는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육성된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국제수준의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음식문화 개선 시범지역 특화거리를 22개 시군에 1개소 이상씩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위생적 음식문화를 이끌고 남도의 전통이 살아있는 특색 있는 맛집을 육성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남도의 특색 있는 음식점 밀집지역을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로 지정, 지금까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2개소 이상씩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시범지역은 연도별로 2009년 목포 복산 먹거리·여수 좌수영 음식문화거리·순천 대석길 안전음식거리, 2010년 광양 백운산 숲솔고기타운·영암 독곶지마을·진도 아리랑 먹거리, 2011년 담양 죽순 푸드빌리지·강진 청자골 한정식맛길, 2012년 화순 청정골 음식문화거리·영광 법성포 굴비거리다.

/정철수기자 bzung@kwangju.co.kr



## 신안 1004개 섬 돌며 선상결재 화제

### 박우량 군수, 행정서서 업무

신안군 박우량 군수가 1004개로 구성된 신안군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배 위에서 결재를 하고 있어 화제를 낳고 있다. <사진> 박 군수는 본격적인 농수철과 어업시기를 맞아 현장을 방문해 보수공사와 생산성, 유통망 등 생산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별한 업무나 외무 일정을 제외하고는 청사 직무실보다는 배 위에서 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오전에도 박 군수는 안좌도를 가기 위해 신장리 선착장에서 19급 천사호 행정선 안에 마련된 2평의 작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우선 안좌도 주민 민원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직원들과 논의를 거쳐 제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배가 작은 탓에 약간의 파도에도 흔들거리지만 박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은 회의를 계속했다.

군이 1004개의 섬 14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는 탓에 연륙교가 있는 3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은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가는데만 최소 30분부터 2시간까지 걸린다.

박 군수는 "섬 특성상 면 단위별로 소득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너무도 다양하다"며 "군수와 공무원들이 조금만이라도 시간이 나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도면 이장협의회 조성덕 회장은 "이장들이 건의하기 전에 군수가 먼저 민원 해결방안을 제시해 놀랐다"고 전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 함평 공공도서관 '물리강연' 개최지 선정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인 함평공공도서관(관장 임종문)이 최근 아시아태평양 이온물리센터(APCTP)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하는 '2013년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번 강연은 전국 중도시의 학생들에게 물리학자 및 물리학 관련분야의 과학자들이 대중과의 만남 및 과학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리학

관련 교양도서를 비롯한 과학도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외 베스트셀러 과학저술가들을 초청해 1권의 책을 주제로 토론회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 이번 강연은 전국 12개 도서관에서 열린다.

함평공공도서관 임종문 관장은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이 지역학생들에게 생활 속의 물리 현상과 이론을 접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미역 채취 분주

완도군 금당도 어민들은 이달 들어 미역 채취 작업으로 분주하다. 어민들은 7일 오전 올해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20% 늘었다며 피곤함도 잊은 채 미역을 뜯고 있다. 금당도는 145어가가 미역을 양식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영광, 9경 9미 9품 공모

영광군은 7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9경(景)·9미(味)·9품(品)'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참가자는 영광지역의 관광지, 음식, 특산물 등을 항목별로 3건 이상씩 추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영광군 홈페이지와 SNS,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3개 항목을 모두 제시한 응모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3만원 상당의 영광군 관광 기념품을 증정한다. 군은 주민의 건 수렴과 심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7월께 최종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영광=조익성기자 ischo@

### 진도, 한글학교 입학식

진도군이 7일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한글학교 제2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군은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쳐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연말까지 읽기와 쓰기를 자원봉사가 가르치는 한글 교육

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강하는 어르신의 교재, 학습용품 등은 무료 지원하고, 과목은 한글, 기본셈 등으로 모두 농촌 현실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체 제작된 교과서로 수업을 실시한다. 이연성 할머니(86·진도읍 통정마을)는 "하루 빨리 우리말을 배워 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진도=박현경기자 hpark@

## 전북

#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 145억 들여 도예체험장·먹거리 장터 등 조성

고창군은 고창읍성 주변을 문화체험 거리로 조성, 관광객들이 역사문화형 관광지로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비 37억60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45억원이 투자되는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고창읍성과 무장읍성의 관아 건물

중 과거 현감의 숙소인 내아와 중앙의 관리들이 출장 중 기거했던 객사를 설계에 반영해 스토리텔링화하고, 도예체험장을 조성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먹거리장터는 한식당과 국밥집 및 주막, 지역특산음식, 약선음식, 떡카페, 어린이를 위한 주전부리를 취급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중앙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군 관계자는 "설계 원가심사 완료 후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을 착공하여 2013년 말 완공할 계획"으로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과 체험형 수확여행객의 발길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창을 방문한 관광객은 806만명으로, 지난 2011년 730만명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

군은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확여행객을 유치하고, 4계절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를 내실 계획이라고 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 군산, 맞춤형 비료·상토 무상 지원

군산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군산시의 전체 벼 재배 농가에 권역별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료와 못자리용 상토를 전량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맞춤형비료'는 26만2540포대(20kg), '못자리용 상토'는 27만5877포대로 전체 수혜농가는 7236농가다. 공급면적은 1만1437ha에 이른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장기기증서약 대학생

전주시 보건소(소장 김경숙)에 실습을 나온 전북대, 예수간호대학 학생 13명이 7일 오전 장기기증서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달까지 전주시에는 476명의 장기기증자들이 등록돼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kwangju.co.kr

## 단신

### 남원, 마을권 복지 간담회 실시

남원시는 지난 6일부터 주천면 용궁마을을 시작으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마을권 복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간담회는 연말까지 8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주 3개 마을씩 직접 방문형 수확여행객의 발길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창을 방문한 관광객은 806만명으로, 지난 2011년 730만명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

군은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확여행객을 유치하고, 4계절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를 내실 계획이라고 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남원시에는 지난 6일부터 주천면 용궁마을을 시작으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마을권 복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간담회는 연말까지 8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주 3개 마을씩 직접 방문형 수확여행객의 발길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창을 방문한 관광객은 806만명으로, 지난 2011년 730만명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

군은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확여행객을 유치하고, 4계절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를 내실 계획이라고 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 전주인재육성재단, 장학생 64명 선발

(재)전주인재육성재단(윤여웅 이사장)은 2013년 1학기 지역우수 인재 장학생 및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을 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이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64명(고등학생 17명, 도내 대학생 29명, 도외 대학생 13명, 특기장학생 5명)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130만원, 대학생 및 특기생은 2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은 고등학생 20명으로 1인당 1300만원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은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에 있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과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은 각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재)전주인재육성재단(윤여웅 이사장)은 2013년 1학기 지역우수 인재 장학생 및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을 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이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64명(고등학생 17명, 도내 대학생 29명, 도외 대학생 13명, 특기장학생 5명)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130만원, 대학생 및 특기생은 2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은 고등학생 20명으로 1인당 1300만원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은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에 있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과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은 각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정읍농기센터, 봄 가뭄 대비 농기계 수리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7일 해마다 반복되는 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23개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를 순회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미한 농기계는 현장에서 직접 수리하고 고장 정도가 심해 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고장 농기계는 농업

기술센터에 입고, 수리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열린 행정,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농기계순회수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한해대책용 읍면동 순회수리를 마친 뒤에는 마을별 순회수리를 실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수리활동은 이달 29일까지 이어진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군-코레일 전북본부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이 철도 관광역 유치를 위해 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코레일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황숙주군수와 김중철 코레일 전북본부장 등 양측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올 초 황숙주 순창군수가 강원도 양구군의 철도관광역 유치 성공사례를 견학한 후 지난달 코

레일 여행관계자를 초청, 4차례에 걸친 순창 팸투어 실시 결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순창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철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마케팅을 펼치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폐쇄명령 강제 벽성대 11일 입학식

###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 승소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학교폐쇄 결정을 받은 전북 김제의 벽성대가 올해 입학식을 하기로 했다.

벽성대는 지난 2011년 7~9월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에서 단속수업으로 인한 부실수업이 확인됐고, 교과부로부터 부당학위 수여자의 학점취득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실제로 당시 규모 총장은 출석 일수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기 위해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회반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해 1천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징형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소중이다.

그러나 벽성대는 현재 교과부를

상대로 본 반안소송이 1심에 계류돼 있는데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학생 안전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벽성대는 지난 2011년 7~9월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에서 단속수업으로 인한 부실수업이 확인됐고, 교과부로부터 부당학위 수여자의 학점취득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실제로 당시 규모 총장은 출석 일수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기 위해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회반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해 1천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징형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소중이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